

# 중장기 세계의 식량 안보 전망 (2025~35년)

오 수진\*

## 1. 조사 개요

### 1.1. 세계 식량 평가 보고서 소개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된다. 세계 식량 평가 보고서(Global Food Assessment, GFA)에서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기준에 따라 1인당 하루 2,100kcal 미만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인구를 ‘식량 불안정’ 인구로 규정한다. 식량 불안정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량 불안정 문제를 악화하는 요인으로는 소득 하락, 식품 가격 상승, 식량 공급 충격 등이 있다.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는 매년 9월 30일 이전에 세계 식량 평가 보고서를 발간한다. 세계 식량 평가 보고서는 식량 불안정 인구를 추산하여 현재와 향후 10년간 식량 안보 추세를 전망한다. 본고에 기재된 결과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확정된 거시경제적 추정을 기반으로 2025년과 향후 10년 간(2035년까지)의 전망을 포함한다. 세계 식량 평가 보고서에서 식량 불안정의 심도(Intensity)는 식량 수요 예측치와 해당 열량 기준(2,100kcal) 간의 격차로 측정된다. 식량 수요는 (1) 해당 국가에서 주로 소비하는 곡물 (2) 기타 곡물 (3) 뿌리 및 괴경(Roots and Tubers) (4) 기타 모든 식품을 통합하여 곡물 당량(Grain Equivalents)으로 집계한다. 예상 식량 수요는 1인당 소득, 소득 불평등, 식료품 가격, 식량 소비,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의 함수로 계산된다.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농업 및 소비자 경제학과, 박사과정생(sujinoh2@illinois.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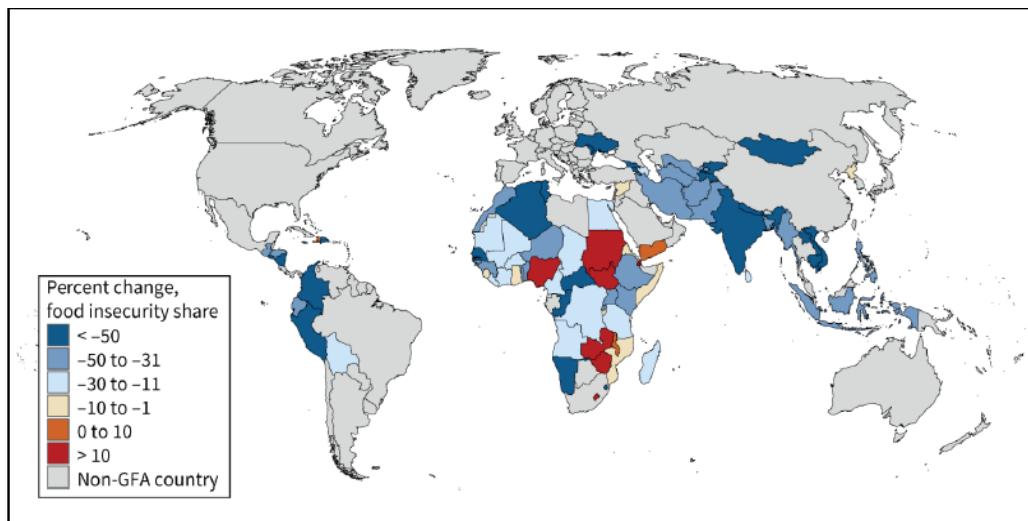
본고는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가 2025년 9월에 발간한 보고서 “Global Food Assessment, 2025–35”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됨.

세계 식량 평가 보고서의 조사 대상국은 83개의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이다. 아시아 14개국 및 3개 소지역, 구소련 지역의 9개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11개국 및 3개 소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8개국 및 2개 소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41개국 및 4개의 소지역이 포함된다.

## 1.2. 주요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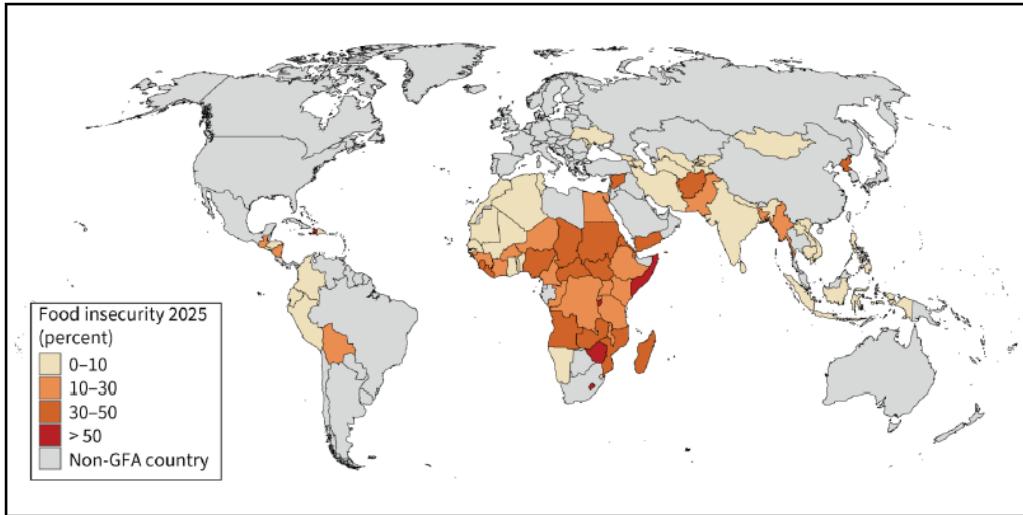
조사 대상국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평균 3.7% 성장하고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이 감소함에 따라 2025년은 2024년에 비해 식량 불안정 인구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구체적으로, 식량 불안정 인구는 2024년 대비 26.7% 감소(2억 2,050만 명)하여 2025년에는 식량 불안정 인구의 비율이 13.5%(6억 420만 명)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2).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 및 거시경제적 불안정 지속, 무력 충돌, 가뭄 등 기상 관련 충격이 취약 국가들에서 식량 안보를 악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년 뒤인 2035년의 식량 불안정 인구는 2025년 대비 44.9% 감소한 3억 3,290만 명으로, 조사 대상국 인구의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

〈그림 1〉 2024년 대비 2025년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 변화(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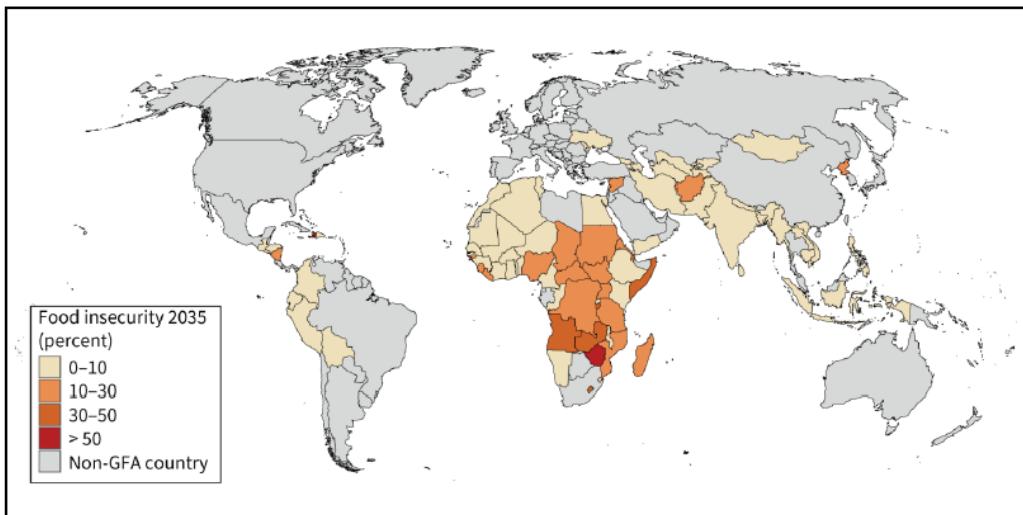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 2025), p.4.

〈그림 2〉 2025년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예측)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 2025), p.4.

〈그림 3〉 2035년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예측)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 2025), p.5.

## 2.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추세 및 전망

### 2.1. 국내총생산<sup>1)</sup> 추세 및 전망

#### 2.1.1. 추산 방법

국내총생산(GDP), 인플레이션, 환율에 대한 전망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개발 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등 개방 데이터를 비롯한 여러 예측 정보가 이용되었다. 부가적인 정보는 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전망치,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의 지역 및 국가 전문가, 그리고 민간 부분의 전망 서비스에서 획득했다. 본 보고서의 전망치는 생산 충격, 분쟁 및 경제 불안정 등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며, 2024년 8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2.1.2. 전망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국들은 2025년과 향후 10년 동안 GDP 및 1인당 GDP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대상국들의 합계 GDP는 2025년에 연간 5.2% 상승하여 11조 8천억 달러에 도달하고, 이후 10년 동안은 연평균 4.9%로 성장하여 2035년에는 대략 1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GDP는 2025년에 2,648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 동안 1인당 GDP 성장률은 연간 3.5%를 유지할 것이며, 2035년에는 3,734달러로 전망된다.

조사 대상국들의 인구는 2025년에 45억 명으로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1.3%씩 성장하여 2035년에는 51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은 향후 10년간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단기(4.9%, 2025년 예측값) 및 장기(4.6%, 2035년 예측값) 성장률이 가장 높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단기(2.1%, 2025년 예측값)와 장기(1.9%, 2035년 예측값) 모두에서 가장 낮다.

---

1) 본고에서 GDP와 1인당 GDP는 모두 2017년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 지표로 작성됨.

〈표 1〉 1인당 GDP – 2025년 및 2035년 전망

지역	GDP(USD)			연간 성장률(%)	
	2022~2024 평균	2025 전망치	2035 전망치	2024~2025	2025~2035
조사대상국 전체	2,476	2,648	3,754	3.7	3.5
아시아	2,627	2,888	4,520	4.9	4.6
구소련	2,988	3,256	4,676	2.7	3.7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5,907	6,092	7,938	2.3	2.7
중동 및 북아프리카	3,376	3,515	4,306	2.4	2.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10	1,335	1,608	2.1	1.9

주: GDP는 2017년 기준.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 2025) p.7, 미국 농무부 최고경제자문관실(USDA OCE: 2025) 2034년 농업 전망(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4)에서 재인용.

## 2.2. 국제 식량 가격 추세 및 전망

### 2.2.1. 추산 방법

국제 식량 가격은 네 가지 품목<sup>2)</sup>별 실질 가격에 곡물 당량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기타 곡물" 및 "뿌리 및 괴경"의 가격은 각 품목의 곡물 당량을 반영하여 가중 평균 한다. "기타 모든 식품"의 가격(곡물 당량 기준)은 식물성 기름 가격을 해당 식품 그룹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얻는다. 국제 가격 전망치는 2024년 10월 기준 생산, 소비 및 무역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 2.2.2. 전망

#### 가. 전체 추세

미국 농무부(USDA)는 2025년에 국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USDA, OCE, 2025). 농산물 공급량이 많고 연료 및 사료를 비롯한 투입재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Ibid). 국제 농산물 가격은 공급망 혼선, 국제 분쟁 및 인플레이션으

2) (1) 해당 국가에서 주로 소비하는 곡물 (주식 곡물) (2) 기타 곡물 (3) 뿌리 및 괴경(roots and tubers) (4) 기타 모든 식량.

로 인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데, 2025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AMIS, 2025; USDA, OCE, 2025 재인용).

향후 10년 동안에도 주요 곡물의 국제 농산물 가격은 하락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의 수요를 능가할 만큼 식량 공급이 풍부해지고, 사료 등 투입재 비용이 하락하는 추세에 기인한다.

#### 나. 지역별 국내 가격

각국의 국내 식량 가격은 국제 무역을 통해 국제 식량 가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전이 효과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2025년에는 조사 대상국 83개국 중 1개 국가(짐바브웨)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주식 곡물의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락 추세는 향후 10년 동안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일한 예외국인 짐바브웨는 지난 2년 간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이 2024년 9월에 더욱 악화되어 2025년에 식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FAO GIEWS, 2024 재인용).

#### 다. 품목별 국제 가격

쌀은 83개의 조사 대상국 중 31개 국가에서 주식 곡물이다. 해당 국가들에서 쌀 가격은 공급 증가 및 무역 제한 완화로 인해 2025년에 0%에서 18% 사이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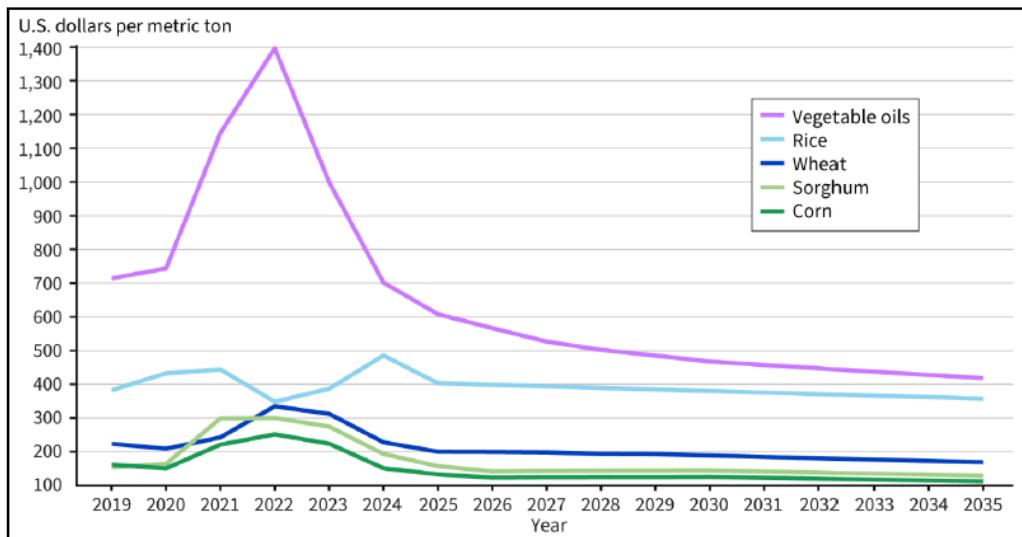
밀은 83개의 조사 대상국 중 27개 국가에서 주식 곡물이며, 2025년에 해당 국가들의 국내 밀 가격은 2%~25% 하락이 전망된다.

옥수수가 주식 곡물인 21개 국가 중 짐바브웨를 제외하면, 2025년 국내 옥수수 가격은 2%~9% 사이의 하락이 전망된다. 짐바브웨에서는 지속적인 고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절하 및 제한된 국내 공급으로 인해 옥수수의 국내 가격이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Ibid).

수수 또는 기장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4개 국가에서는 2025년에 국내 수수 또는 기장의 가격이 4%~9% 사이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성 기름(기타 식품군의 대리 변수)의 가격은 2022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부터 하락해왔다. 식물성 기름의 가격은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11%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품목별 국제 가격 전망



주: 2017년 USD 기준.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 2025), p.9.

## 2.3. 곡물 수요, 생산 추세 및 예상 추가공급 필요량

### 2.3.1. 추정 방법

세계 식량 평가(GFA) 모델의 식량 수요 전망치는 품목별 평균 열량 함량을 기반으로 하여 곡물 당량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곡물은 그램당 약 3.5 kcal이며, 괴경(tubers)은 그램당 약 1kcal로 계산된다. 따라서 1톤의 괴경은 0.29톤의 곡물에 해당한다.

예상 추가공급 필요량(IASR: Implied Additional Supply Required)은 총 곡물 수요와 곡물 생산량의 차이이다. 예상 추가공급 필요량(IASR)은 조사 대상 국가에 대해 그 결과가 양수/음수일 경우 식량 및 사료 가용성의 부족분/잉여분을 추정하여 나타낸 수치이다.

### 2.3.2. 전망

2025년에 조사 대상국들의 총 곡물 수요는 11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24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다(표 2). 향후 10년 동안 총 곡물 수요는 연간 2.2%씩 증가하여 2035년에는 14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곡물 수요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식량 수요는 연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기타 용도(종자, 사료, 가공 및 폐기)에 대한 수요는 연간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2).

향후 10년 동안, 곡물 생산량은 2025년 8억 6,700만 톤에서 2035년 10억 톤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구소련(FSU)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내 곡물 생산량과 수요 사이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예상 추가공급 필요량(IASR), 즉 식량 부족분은 2025년 2억 7,140만 톤에서 2035년 3억 9,430만 톤으로 연간 3.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상당한 주식 곡물 부족분에 기인한다.

〈표 2〉 곡물 수요와 생산량 – 2025년 및 2035년 전망

지역	총 곡물 수요				곡물 생산량		예상 추가공급 필요량		단위: 백만 톤	
	식량 수요		기타 용도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조사 대상국 전체	849.5	1,084.8	288.8	328.6	867.0	1,019.1	271.4	394.3		
아시아	543.5	667.9	143.6	173.4	577.8	660.7	109.3	180.6		
구소련	22.4	34.1	26.2	24.1	72.1	79.4	-23.5	-21.2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26.3	30.7	25.8	30.2	17.8	21.7	34.3	39.2		
중동 및 북아프리카	83.9	104.2	53.5	53.4	54.4	65.9	83.0	91.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73.5	247.9	40.4	49.9	144.8	191.4	69.1	106.4		

주 1) 예상 추가공급 필요량(IASR)은 지역 내 총 곡물 수요(식량 수요+기타 용도)와 곡물 생산량 간의 격차를 나타냄.

2) 기타 용도에는 종자, 사료, 폐기물, 가공 등이 포함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 2025) p.11.

## 2.4. 지역별 식량 수요 증가 요인 분해 – 1인당 소비량 증가와 인구 증가

조사 대상국의 식량 수요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2.5% 증가하여, 2025년 8억 4,950만 톤에서 2035년에는 10억 8,48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2.5%의 식량 수요 증가분 중 1.2%(총 증가분의 46%)는 1인당 식량 소비 증가에 기인하며, 나머지 1.3%의 증가분(총 증가분의 54%)은 인구 증가에 의한 것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1인당 식량 소비 증가가 식량 수요 증가의 주요 동인이다(그림 5).

아시아의 식량 수요 증가율은 연간 2.1%로 전망되며, 수요의 절대적 증가분은 2025년에 5억 4,350만 톤, 2035년에 6억 6,790만 톤으로 가장 를 것이다. 증가분 중 60%가 1인당 소비량 증가에서 기인한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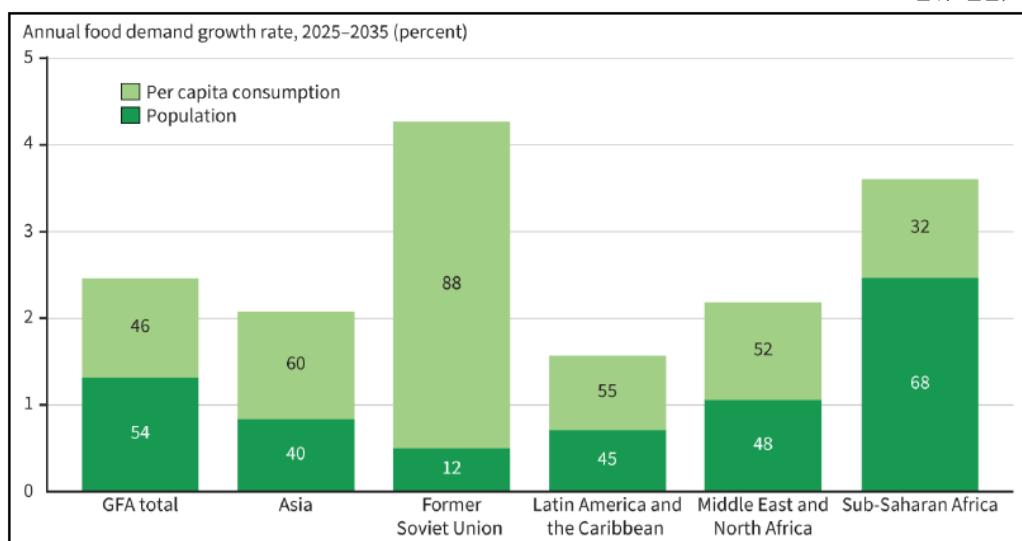
구소련 지역은 식량 수요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연간 4.3% 증가)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2,240만 톤에서 2035년에는 3,41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소득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능가하면서 1인당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소련에서는 전체 수요 증가분 중 1인당 소비량 증가가 88%를 차지한다(그림 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식량 수요는 2025년에 1억 7,350만 톤에서 2035년에는 2억 4,790만 톤으로 연간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분의 68%가 인구 증가에 의한 것이다(그림 5).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식량 수요는 각각 연간 2.2% 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는 연간 1.6%로 모든 지역 중 가장 낮은 식량 수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세 지역권은 모두 식량 수요 증가에 대한 1인당 소비량 증가의 기여분이 인구 증가의 기여분보다 소폭 크다(그림 5).

〈그림 5〉 지역별 식량 수요 증가 분해 – 향후 10년 전망(2025~2035)

단위: 연간, %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25), p.12.

## 4. 지역별 식량 안보 예측

### 4.1. 전체 추세

#### 4.1.1. 식량 불안정 인구 분포

조사 대상국들의 2025년 추산 식량 불안정 인구 중 89.5%는 아시아(2억 850만 명) 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3억 3,230만 명)에 거주한다(그림 6). 2025년의 추산 식량 불안정 인구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890만 명), 중동 및 북아프리카(4,220만 명), 구소련 (230만 명) 순으로 많다(표 3).

2025년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26.9%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11.7%),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10.5%), 아시아(8.1%) 순이다. 주로 중소득 국가로 구성된 구소련 지역의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 6). 향후 10년 뒤 아시아의 식량 불안정 인구는 4,58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억 6,280만 명이 식량 불안정을 경험할 것으로 추산된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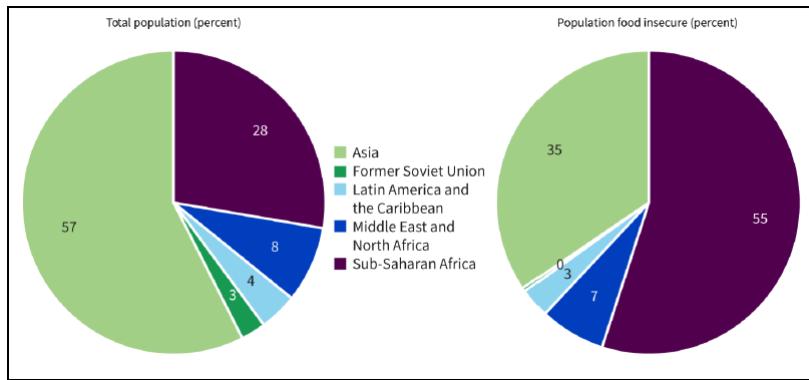
〈표 3〉 조사대상국의 식량안보 평가 결과 – 2025년 및 2035년 전망

단위: 백만 톤

지역	인구		식량불안정인구		식량불안정인구비율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조사 대상국 전체	4,460.9	5,084.1	604.2	332.9	13.5	6.5
아시아	2,564.4	2,787.1	208.5	45.8	8.1	1.6
구소련	118.3	124.3	2.3	0.3	2.0	0.2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80.7	194.0	18.9	11.6	10.5	6.0
중동 및 북아프리카	361.9	402.0	42.2	12.4	11.7	3.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35.5	1,576.7	332.3	262.8	26.9	16.7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 2025), p.16.

〈그림 6〉 지역별 총 인구 및 식량 불안정 인구 분포



주 1) 세계 식량 평가 보고서의 조사 대상국들만 이용한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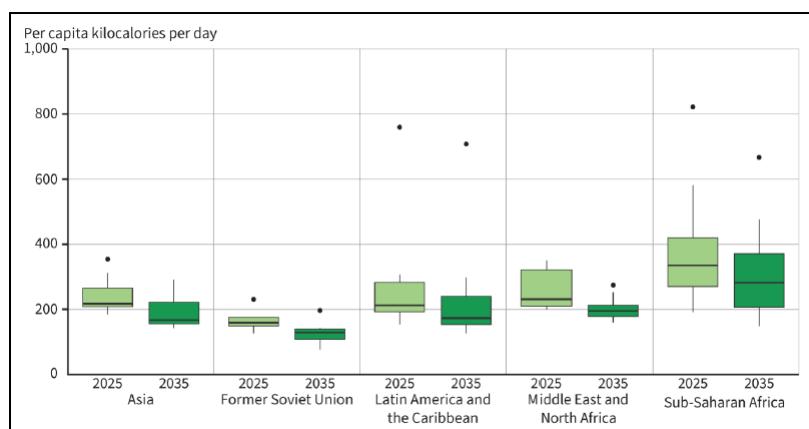
2) (좌) 전체 인구 분포 (우) 식량 불안정 인구 분포.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 2025), p.16.

#### 4.1.2. 식량 격차

2025년에 식량 격차(Food Gap)는 구소련 지역에서 1인당 하루 평균 176kcal,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하루 평균 462kcal로 예상된다. 모든 지역에서 2035년까지 식량 격차의 중앙값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10년 뒤에도 1인당 하루 평균 300kcal 이상의 열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7).

〈그림 7〉 지역별 식량 격차



주: 세계 식량 평가 보고서의 조사 대상국들만 이용한 통계임.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25), p.17.

## 4.2. 지역별 추세

### 4.2.1. 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식량 불안정 인구는 2024년 3억 8,360만 명(15.4%)에서 2025년 2억 850만 명(8.1%)으로 45.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표 4). 2035년에는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이 1.6%까지 감소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식량 안보 개선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식량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비해서 주식 곡물의 국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에 크게 기인한다 (FAO, 2024a 재인용). 또한 2025년에는 1인당 GDP가 연 4.9% 증가하며 식량 안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안정화, 식량 보조금 지급, 목표 신용 정책, 식량 수입의 존도 감소, 주식 시장의 국내 생산 우선시 등 여러 정부 정책도 작용한다(World Bank, 2025). 또한,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식량 안보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14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ADB, 2024).

향후 10년 동안 아시아 지역의 1인당 GDP는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표 1). 특히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반면, 아프가니스탄은 202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0.5%)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0년 동안 평균 성장률도 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파키스탄, 미얀마의 1인당 GDP 연간 성장률은 3% 미만으로 전망된다(표 5).

〈표 4〉 아시아 지역의 식량 안보: 2025년 및 2035년 전망

단위: 백만 명, %, kcal

지역/소지역	국가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		식량 격차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아시아		2,564.40	2,787.10	208.5	45.8	8.1	1.6	255	239
동아시아	동아시아	29.9	30.3	11.0	4.0	36.7	13.3	353	261
	북한	26.6	26.8	10.9	4.0	41.1	15.0	354	261
	몽골	3.3	3.5	0.0	0.0	1.3	0.1	185	143

지역/소지역	국가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		식량 격차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남아시아	남아시아	1,940.9	2,114.6	164.4	34.8	8.5	1.6	251	242
	아프가니스탄	41.0	50.0	13.8	14.7	33.7	29.4	305	291
	방글라데시	170.2	183.2	17.8	2.3	10.5	1.2	242	178
	인도	1,419.3	1,522.8	81.6	5.2	5.7	0.3	210	152
	네팔	31.3	33.3	1.3	0.1	4.3	0.2	208	151
	파키스탄	257.0	303.0	48.3	12.4	18.8	4.1	312	235
	스리랑카	22.1	22.4	1.5	0.2	6.8	1.1	208	163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593.6	642.2	33.1	7.0	5.6	1.1	243	210
	미얀마	57.9	61.4	7.8	3.4	13.4	5.6	263	224
	캄보디아	17.2	18.7	0.6	0.0	3.4	0.2	209	155
	인도네시아	283.6	301.6	13.0	1.2	4.6	0.4	225	171
	라오스	8.1	8.9	0.4	0.1	5.2	1.0	199	162
	필리핀	120.1	137.2	9.0	2.1	7.5	1.5	266	214
	베트남	106.7	114.4	2.3	0.1	2.2	0.1	210	158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25), p.21, 미국 농무부 OCE 2034 장기 예측 보고서(2025).

〈표 5〉 아시아 지역의 1인당 GDP: 2025년 및 2035년 전망

단위: 2017년 기준 USD, %

지역/소지역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2022~2024 평균	2025	2035	2024~2025	2025~2035
아시아	2,627	2,888	4,520	4.9	4.6
동아시아	1,029	1,099	1,434	3.2	2.7
남아시아	2,318	2,562	4,096	5.1	4.8
동남아시아	3,721	4,046	6,060	4.4	4.1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25), p.22, 미국 농무부 OCE 2034 장기 예측 보고서(2025).

#### 4.2.2 구소련

구소련 지역은 식량 공급 및 수출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자 3위의 옥수수 수출국이다(USDA, 2025 재인용).

2025년 구소련 지역의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은 2.0%(230만 명)로, 이는 2022년~2024년 평균 9.6%(1,120만 명)에 비해 개선된 수치이다. 조사 대상국 9개국 중 8개국은 2025년에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이 3% 미만일 것으로 추산된다(표 6). 이는 지역권 내 주식 곡물 평균 가격이 7% 감소하고 GDP가 평균 5.1% 성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2035년에는 식량 불안정 인구가 0.2%로, 5개의 지역권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된다(표 6).

〈표 6〉 구소련 지역의 식량 안보: 2025년 및 2035년 전망

단위: 백만 명, %, kcal

지역/소지역	국가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		식량 격차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구소련		118.3	124.3	2.3	0.3	2.0	0.2	176	167
구소련	아르마니아	3.0	2.8	0.0	0.0	0.1	0.0	127	97
	아제르바이잔	10.7	11.1	0.2	0.0	2.2	0.4	156	129
	조지아	4.9	4.7	0.0	0.0	0.6	0.0	159	127
	키르기스탄	6.2	6.6	0.1	0.0	1.4	0.1	175	140
	몰도바	3.6	3.4	0.1	0.0	1.5	0.0	149	107
	타지키스탄	10.6	12.7	0.5	0.1	4.4	1.2	231	196
	투르크메니스탄	5.8	6.2	0.1	0.0	2.1	0.3	176	144
	우크라이나	36.5	35.6	0.5	0.0	1.3	0.0	146	76
	우즈베키스탄	37.0	41.2	0.9	0.1	2.4	0.1	171	131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25), p.25, 미국 농무부 OCE 2034 장기 예측 보고서(2025).

〈표 7〉 구소련 지역의 1인당 GDP: 2025년 및 2035년 전망

단위: 2017년 기준 USD, %

지역/소지역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2022~2024 평균	2025	2035	2024~2025	2025~2035
구소련	2,988	3,256	4,676	3.7	3.7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25), p.26, 미국 농무부 OCE 2034 장기 예측 보고서(2025).

#### 4.2.3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은 지역 경제 회복, 인플레이션 하락, 해외 송금 증가, 그리고 일부 국가의 식량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 등 복합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식량 안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예상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은 10.5%(1,890만 명)로, 2024년(16.6%)에 비해 36.7% 낮다(표 3). 또한, 2035년에는 이 비율이 6.0%(1,160만 명) 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9).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은 지역 내 식량 안보 수준의 격차가 크다. 아이티는 식량 불안정 인구가 66.1%이며, 볼리비아도 18%로 높은 수준인 반면, 콜롬비아는 1.9%, 도미니카 공화국은 0.6%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표 8). 아이티는 지난 수년 간 정치적 불안정 및 경제 위기를 겪으며 높은 수준의 급성 식량 불안정에 시달렸다(WFP & FAO: 2024 재인용). 2025년 아이티의 식량 불안정 인구는 790만 명(총인구의 66.1%)으로 추산되며, 식량 격차는 1인당 하루 760kcal로 조사 대상국들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표 8).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콜롬비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빙곤층 대상 복지 정책 덕분에 2025년에 식량 불안정 인구가 1.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식량 안보: 2025년 및 2035년 전망

단위: 백만 명, %, kcal

지역/소지역	국가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		식량 격차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80.7	194.0	18.9	11.6	10.5	6.0	462	553
카리브해	카리브해	25.6	27.8	8.0	7.8	31.2	28.2	751	707
	도미니카 공화국	10.9	11.6	0.1	0.0	0.6	0.0	154	126
	아이티	11.9	13.3	7.9	7.8	66.1	59.0	760	708
	자메이카	2.8	2.9	0.1	0.0	2.0	0.3	168	137
중앙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41.6	45.9	4.9	2.6	11.7	5.6	289	261
	엘살바도르	6.6	6.7	0.3	0.1	4.7	0.9	211	173
	과테말라	18.5	21.1	2.9	1.4	15.5	6.6	299	254
	온두라스	9.7	10.8	0.9	0.3	9.1	3.2	268	227
	니카라과	6.7	7.3	0.8	0.8	11.9	10.3	307	298

지역/소지역	국가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		식량 격차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113.5	120.3	6.1	1.2	5.3	1.0	220	180
	볼리비아	12.4	13.5	2.2	0.7	18.0	5.0	253	197
	콜롬비아	49.8	51.5	1.0	0.1	1.9	0.2	194	154
	에콰도르	18.5	20.2	1.2	0.3	6.6	1.2	191	153
	페루	32.8	35.1	1.6	0.2	5.0	0.7	213	168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25), p.31, 미국 농무부 OCE 2034 장기 예측 보고서(2025).

〈표 9〉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1인당 GDP: 2025년 및 2035년 전망

단위: 2017년 기준 USD, %

지역/소지역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2022~2024 평균	2025	2035	2024~2025	2025~203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5,907	6,092	7,938	2.3	2.7
카리브해	5,208	5,435	7,121	2.4	2.7
중앙아메리카	3,920	4,075	4,861	1.8	1.8
남아메리카	6,784	6,978	9,300	2.4	2.9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25), p.31, 미국 농무부 OCE 2034 장기 예측 보고서(2025).

#### 4.2.4.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은 2024년 14.9%에서 2025년 11.7%로 하락하고, 2035년에는 3.1%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표 10, 표 11). 1인당 식량 격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하루 318kcal에서 255kcal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리아와 예멘에서는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안보 전망은 지속적인 분쟁, 경제적 불안정, 난민 이주, 국내 실향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작용한다. 특히 예멘은 2024년 7월~9월 중 예멘 정부 통제 지역 인구의 약 절반(470만 명)이 심각한 수준의 급성 식량 불안정을 겪었고(IPC: 2025 재 인용), 예멘의 식량 불안정 인구는 2024년 전국 1,090만 명에서 2025년 1,1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리아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인구 다수가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인구의 39%인 940만 명이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으로 추산된다(표 10).

〈표 10〉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안보: 2025년 및 2035년 전망

단위: 백만 명, %, kcal

지역/소지역	국가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	식량 격차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중동 및 북아프리카		361.9	402.0	42.2	12.4	11.7	3.1	318	255
중동	중동	151.5	167.1	23.3	6.0	15.4	3.6	330	263
	이란	89.1	95.2	2.4	0.3	2.7	0.3	202	160
	레바논	5.4	5.7	0.5	0.2	9.0	3.1	235	199
	시리아	24.3	28.1	9.4	5.3	38.5	18.7	345	275
	예멘	32.7	38.2	11.1	0.3	33.9	0.7	350	181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210.4	234.9	18.9	6.4	9.0	2.7	303	246
	알제리	47.7	54.2	0.9	0.4	1.9	0.7	213	191
	이집트	112.9	127.7	16.8	5.7	14.9	4.5	313	253
	모로코	37.7	40.4	1.0	0.3	2.6	0.8	228	200
	튀니지	12.1	12.6	0.2	0.0	1.4	0.2	200	167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25), p.34, 미국 농무부 OCE 2034 장기 예측 보고서(2025).

〈표 11〉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1인당 GDP: 2025년 및 2035년 전망

단위: 2017년 기준 USD, %

지역/소지역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2022~2024 평균	2025	2035	2024~2025	2025~2035
중동 및 북아프리카	3,376	3,515	4,306	2.4	2.0
중동	3,771	3,925	4,774	2.3	2.0
북아프리카	3,092	3,220	3,973	2.4	2.1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25), p.35, 미국 농무부 최고경제자문관실(USDA OCE: 2025).

#### 4.2.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25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의 26.9%인 3억 3,230만 명이 식량 불안정 상태일 것으로 전망된다(표 12). 이는 2024년 대비 5.4% 감소한 수치이다. 향후 10년 동안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2035년에는 2025년 대비 20.9% 감소한 2억 6,280만 명으로 예상된다(표 1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권보다 개선 속도가 느려 단기(2025년) 및 장기(2035년)에서 식량 불안정 인구 수와 비율이 가장 높다(표 3). 또한, 1인당 식량 격차는 2025년에 하루 414kcal로 심화할 것으로 추산된다(표 12).

이러한 지체는 부분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거시경제 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향후 10년 동안 GDP가 연간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같은 기간 인구 성장률이 2.5%를 유지하면서 소득 상승 효과를 상쇄할 것이다(그림 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035년 예상 1인당 GDP는 1,608달러로, 다른 각 지역권의 당해(2025년) 1인당 GDP 추정치보다 최소 40% 낮은 수준이다(표 1). 또한 정치적 불안정 및 분쟁 위험, 이상 기후 현상은 이 지역 식량 안보에 잠재적인 장애물로 남아 있다(FAO & WFP, 2024 재인용).

부룬디는 조사 대상국 중 2025년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72.3%)과 1인당 식량 격차(하루 528kcal)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단은 식량 불안정 인구가 100% 인상되어 2025년에 33.6%에 달하고, 1인당 식량 격차는 2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속적인 내전 및 관련 정치적, 거시경제적 불안정과 관련되어 있다(FAO, 2024; World Bank, 2025; IPC, 2024 재인용). 수단 내전 격화는 인접 국가의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수단은 수단 분쟁의 실향민 유입과 송유관 손상(IPC, 2024; World Bank, 2024 재인용)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었으며, 2025년에는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이 2024년보다 21% 증가한 48.1%로 추산된다(표 12). 부르키나파소,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는 지난 5년간 각각 쿠데타 또는 쿠데타 시도의 영향을 받아 식량 안보에 위협 요소로 작용했다.

남아프리카(SAF) 국가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 및 식량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표 12). 남아프리카 소지역은 2025년에 전체 인구의 41.9%가 식량 불

안정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1인당 평균 식량 격차는 하루 536 kcal이다. 특히 2025년에 짐바브웨, 레소토 및 잠비아 인구의 식량 불안정 비율은 각각 92.5%, 75.1%, 45.9%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표 12).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 생산량이 지난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50% 감소(WFP & FAO, 2024 재인용)하며 이들 국가에게 타격을 주었다. 말라위도 2024년에 옥수수 생산량이 17% 감소했으며, 식량 불안정 인구가 2025년에 2024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FAO GIEWS, 2024 재인용). 그러나 향후 10년 동안에는 GDP 성장이 인구 증가를 앞질러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이 32.4%로 하락할 것이다(표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소지역은 GDP 성장이 인구 증가를 앞질러서 2035년에는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이 15.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12).

〈표 1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안보: 2025년 및 2035년 전망

단위: 백만 명, %, kcal

지역/소지역	국가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		식량 격차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35.5	1,576.7	332.3	262.8	26.9	16.7	414	380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196.5	261.0	56.3	53.2	28.6	20.4	474	429
	부룬디	14.0	18.3	10.1	8.1	72.3	44.5	528	391
	카메룬	31.8	41.1	4.1	3.2	13.0	7.7	270	24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8	6.8	1.7	1.0	30.3	14.5	348	285
	차드	19.7	26.2	7.2	7.0	36.8	26.6	448	402
	콩고	6.2	7.8	1.0	0.4	15.6	4.8	254	204
	DR 콩고	119.0	160.9	32.1	33.6	26.9	20.9	502	468
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434.0	541.9	118.0	58.4	27.2	10.8	309	282
	지부티	1.0	1.2	0.2	0.1	18.0	12.0	309	282
	에리트리아	6.4	7.4	2.1	1.3	32.6	17.3	324	270
	에티오피아	121.4	150.8	18.9	3.2	15.5	2.1	272	196
	케냐	59.4	71.8	12.3	2.0	20.7	2.8	282	196
	마다가스카	30.1	36.4	14.7	8.1	48.8	22.3	408	307
	르완다	13.8	16.1	1.9	0.4	13.8	2.2	299	223
	소말리아	19.7	26.3	13.2	12.6	67.1	47.7	582	476

지역/소지역	국가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		식량 격차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2025	2035
남아프리카	남수단	12.2	14.8	5.9	3.2	48.1	21.9	430	325
	수단	49.8	59.7	16.7	10.5	33.6	17.6	371	308
	탄자니아	69.3	89.5	17.8	9.4	25.6	10.5	416	338
	우간다	50.9	68.0	14.5	7.7	28.5	11.3	381	303
	남아프리카	140.0	180.0	58.6	58.3	41.9	32.4	536	472
	양골라	38.5	53.3	14.1	18.6	36.8	34.9	383	376
	에스와티니	1.1	1.2	0.1	0.0	9.6	2.8	229	189
	레소토	2.2	2.4	1.7	1.2	75.1	49.5	532	399
	말라위	22.2	27.0	3.7	0.9	16.6	3.4	312	236
서아프리카	모잠비크	34.2	44.2	12.9	11.6	37.6	26.2	420	372
	나미비아	2.9	3.4	0.2	0.0	6.3	1.1	197	157
	잠비아	21.4	27.8	9.8	9.1	45.9	32.6	534	468
	짐바브웨	17.5	20.7	16.2	16.9	92.5	81.5	822	667
	서아프리카	465.0	593.7	99.3	92.8	21.4	15.6	344	322
	베닌	15.2	20.8	1.2	0.4	8.0	1.9	262	214
	부르키나파소	23.6	29.1	4.4	1.7	18.6	5.9	399	320
	카보베르데	0.6	0.7	0.0	0.0	7.5	1.0	227	174
	코트디부아르	30.6	37.2	3.4	1.1	11.2	2.8	350	283
아프리카	감비아	2.6	3.1	0.2	0.0	8.6	1.6	241	190
	가나	35.3	43.1	1.2	0.3	3.3	0.8	215	182
	기니	14.4	18.8	1.5	0.6	10.2	3.0	298	246
	기니비사우	2.2	2.8	0.6	0.3	28.4	12.4	330	267
	라이베리아	5.6	6.8	2.4	1.6	44.0	23.1	535	431
	말리	22.6	29.7	2.0	1.0	8.9	3.3	274	235
	모리타니	4.4	5.2	0.3	0.1	5.8	1.4	248	206
	니제르	27.3	39.0	3.5	1.3	12.7	3.4	335	270
	나이지리아	242.8	310.6	73.3	81.2	30.2	26.1	337	322
아시아	세네갈	19.3	23.9	0.6	0.1	3.0	0.2	191	148
	시에라리온	9.3	11.4	3.7	3.0	39.9	26.3	472	410
	통고	9.1	11.4	0.9	0.2	9.9	1.7	256	198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 2025), pp.41~42, 미국 농무부 최고경제자문관실(USDA OCE: 2025).

〈표 1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인당 GDP: 2025년 및 2035년 전망

단위: 2017년 기준 USD, %

지역/소지역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2022~2024 평균	2025	2035	2024~2025	2025~203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10	1,335	1,608	2.1	1.9
중앙아프리카	670	690	788	1.5	1.3
동아프리카	1,155	1,169	1,614	3.7	3.3
남아프리카	1,666	1,682	1,836	0.9	0.9
서아프리카	1,616	1,659	1,893	1.7	1.3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25), p.42, 미국 농무부 최고경제자문관실(USDA OCE: 2025).

## 5. 요약 및 시사점

세계 식량 평가 보고서는 다음의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2025년 식량 불안정 인구는 6억 420만 명(조사 대상국 인구의 13.5%)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4년 대비 26.7% 감소한 수치이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조사 대상국의 1인당 GDP가 평균 3.7% 성장)과 국제 농산물 가격 하락(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이 단기적인 식량 안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식량 안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개선되어 2035년에는 식량 불안정 인구의 비율이 6.5%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아시아와 구소련 지역의 경제 성장이 전반적인 개선 추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곡물 수요 성장세(연간 2.2%)가 생산량 증가세(연간 1.6%)를 초과하면서 국제 식량 공급망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추가공급 필요량(IASR)은 2025년에 2억 7,140만 톤에서 2035년에는 3억 9,430만 톤으로 연간 3.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농지 면적이 협소하며,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사료용 제외) 양곡 자급률은 2023년 기준 46%로, 특히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밀의 경우 단 1.3%에 불과하다(농림축산식품부, 2024).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한국의 식량 안보는 환율, 유가 등 국제 거시경제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 식량 자급률 추세 전환 및 (2)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가치로 중장기적 식량 안보 강

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2). 세계 식량 평가 보고서의 전망은 한국의 식량 안보 정책에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단기적 국제 식량 가격 안정화 추세는 한국의 식량 수입 비용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국내 기초 식량 작물의 생산 기반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식량 자급률을 목표(2027년까지 55.5%)대로 달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예상 추가공급 필요량(IASR)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전망은 국제 곡물 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식량 작물의 공공 비축을 확대하는 등 국제 시장의 충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1) 주요 곡물 수출국과의 비상시 안정적 식량 확보 장기 구상 및 (2) 민간 해외 농업자원 개발 사업 연계 전략적 ODA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2022.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 농림축산식품부. 2024. 양곡자급률 및 품목별 자급률. 2024.08.29. 사전정보공표 기초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 (ADB). 2024. *ADB passes half-way mark in \$14 billion food security commitment.* (Press release).
-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 2025. *Market monitor February 2025.*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Global Information Early Warning System (GIEWS). 2024.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World Food Program (WFP). 2024. *Hunger hotspots: FAO-WFP early warnings on acute food insecurity, June to October 2024 outlook.*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2024.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Triannual global report No. 3).*
- 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IPC). 2024. *Famine review committee: Sudan, December 2024-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IPC). 2025. *Country acute food insecurity analysis: Yemen.*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2025. *Grain: World markets and trade.*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ERS). 2025. Global Food Assessment, 2025–2035.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USDA OCE). 2024.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3 (Report No. OCE-2024-1).*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USDA OCE). 2025.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4 (Report No. OCE-2025-1).*
- World Bank. 2025. *Food security update.*
- Zereyesus, Y. A., Cardell, L., Farris, J., Ajewole, K., Johnson, M. E., Lin, J., Valdes, C., & Zeng, W. 2025. *Global food assessment, 2025–35 (Report No. GFA-36).*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